“五戒 지키고 보살행 실천해 참사람 되길”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11월 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258명 수계받아 불자로 살길 서원
이사장 혜수 스님, 보살행 강조해
가족 수계자 눈길, ‘불자가족’ 탄생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한마음선원이 11월 3일 안양본원에서 ‘한마음선원 제36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신도에게 연비를 하고 있는 모습.

“저희 수계자들은 발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여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모두가 지혜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발원합니다.”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오계를 받아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길 서원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1월 3일 안양본원에서 ‘한마음선원 제36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대행 선사를 증사로, 이사장 혜수 스님을 계사로 청해 진행됐다. 258명의 수계자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아 불제자로 새로 태어났으며, 4360명은 연비(燃臂)를 받으며 불자로서 정진할 것을 발심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예불을 시작으로 삼보를 찬탄하며 수계를 고하는 ‘거향찬’, 삼보를 청하는 ‘청성’, 법을 청하는 ‘청법삼배·청법가’, 입정, 대행 선사 영상법문, 수계사를 청하는 ‘청사’, 오계 설법, 팔을 태우며 업장을 참회하는 ‘연비’, 수계자 발원, 수계첩 수여, 이사장 혜수 스님 말씀, 선법가 ‘일체제불의 마음’ 합송,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계만 잘 지켜도 참사람이 될 수 있다”며 “대행 큰스님께서는 오계를 갖는 것은 여러분이 보살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진짜 보살이 돼서 보살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남성 재가불자는 ‘모범 범(範)’자를, 여성 재가불자는 ‘믿을 신(信)’자를 법명으로 받았다. 수계자 대표 송가헌(56, 안양본원) 씨는 “오늘 1호로 수계를 받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다. 수계를 계기로 한마음선원에서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나’에서 나온다고 배웠다. 마음공부를 통해 내가 밝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계법회에 온 가족이 동참해 ‘불자 가족’이 탄생했다. 가족과 함께 수계를 받은 김금미(38, 부산지원) 씨는 “수계를 받으니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밝게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대행 선사 가르침대로 오계를 지키고 보살행을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차 연비를 받으며 부단한 정진을 다짐하는 불자도 있었다. 조주리(27, 안양본원) 씨는 “오랜만에 절에 와서 연비를 다시 받게 됐는데 앞으로 더 정진해야겠다”며 “언제나 좋은 가르침을 주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대행 선사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제36회 수계법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됐다.

월간 ‘불광’ 50돌…“새로운 100년 준비”

11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서
“영상시대 콘텐츠 생산 진력”
50주년 특집 사진집 발간도
1974~2024년 불광 역사 담아


지홍 스님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불광〉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영상과 온라인 시대 콘텐츠 제작에 진력할 것입니다.”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발행인 지홍 스님)〉이 11월 6일 서울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창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를 추진한 광덕 스님(1927~1999)이 창간한 월간 〈불광〉은 1974년 11월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2024년 11월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발행인 지홍 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발행인 지홍 스님은 기념사에서 “종로 대각사의 작은 방에서 시작한 월간 〈불광〉이 우리 사회에 불교 소양을 넓히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창간 50주년 맞이한 〈불광〉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불광〉은 종이 잡지와 책을 만드는 회사에서 더욱 발전해 영상과 온라인 시대의 콘텐츠 생산에 진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불광〉을 발행하고 있는 불광미디어는 창간 50주년을 맞이해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불광 50주년 사진집〉 특집호를 발간했다.

김민재 기자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평등 세상 기원”

사노위, 11월 2일 인천 부평역서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



자비와 포용의 정신으로 이웃과 연대하는 불자들이 성소수자들과 연대 행보를 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2일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 열린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연대의 뜻을 밝혔다.〈사진〉

이번 축제는 ‘거침없이 멈춤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 슬로건으로 열렸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 주최 추산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노위에서는 부위원장 시경 스님, 위원 동신·도승·법정 스님이 동참했다.

이날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엔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차별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싸우며 만들어 온 역사가 허무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이러한 무지갯빛 해방 물결이 곧 혐오의 마음을 녹여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회로 만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노위원 스님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행진에도 참여했다. 김가령 기자

은정재단, 은정장학금 전달식…“인재불사 앞장설 것”

11월 2일 동국대 중강당서
총 8600만원 장학금 전달
나란다축제 시상식도 함께


은정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개인 57명에게 86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미래 불교를 견인할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난 9월 열린 나란다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 이하 은정재단)은 11월 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1회 은정장학금 전달식 및 제16회 나란다축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은정장학금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막이 올랐다. 불교단체 1곳(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을 비롯해 지혜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김다연(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김미주(과천외국어고) 등 대학원생 2명,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25명, 중학생 14명, 초등학생 1명 등 총 개인 57명에게 86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나란다축제 단체 대상은 조계사 어린이 법회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청담고·구룡사 어린이 법회가, 우수상은 화엄사·봉선사 어린이 법회, 해동고 등 6팀이 수상했다.

문체부 장관상인 대상은 이우빈(구룡사, 초등부), 정효현(학남중), 이도경(청담고) 학생이 차지했다. 초등부 17명, 중등부 37명, 고등부 4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솔리즈’ 팀이, 은정전통국악예술경연대회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김민서(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 받았다.

은정재단 이사장 성월 스님은 인사말에서 “월암당 정대 스님은 인재불사의 크나큰 원력을 세우셨고 ‘은정재단’을 설립하셨다. 이는 오로지 불교중흥을 위한 원력보살의 실천행”이라며 “앞으로도 은정재단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인재불사와 불교중흥의 가치를 앞장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부처님 가피로 합격하길!”…대불련, 고3 수능 응원

전국 14개 종립학교 420여 명에
총 14가지 선물 담긴 ‘응원 박스’

11월 14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대부여고, 동대부고를 비롯해 전국 14개 종립고등학교 불교동아리(파라미타) 소속 420여 고3 수험생에게 ‘수능응원선물’을 전달했다.〈사진〉

‘수능응원선물 전달’ 사업은 대불련의 캠퍼스포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수능 응원 박스 구성에는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이자 인스타그램에서 캐릭터 ‘뭉밀이’를 그리는 현밀 스님과 불교박람회를 뜨겁게 달궜던 ‘깨닫다’ 티셔츠의 주인공인 주여진 작가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현밀 스님과 주 작가는 캐릭터 뭉밀이가 그려진 ‘만사형통 키링’과 포스트잇, 합격을 부르는 스티커와 ‘깨닫다·광명진언 부적 스티커’를 준비했다. 더불어 비타민과 홍삼, 초콜릿, 과자 등 간식을 포함한 핫팩, 휴대용 화장지 등 총 14가지 선물을 전달했다.

주현우 대불련 회장과 유정현 대불련 기획팀장은 11월 1일 동대부여고에 방문,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응원선물을 직접 전달했다. 주현우 회장은 “지금까지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느낀 감사한 마음을 회향하고자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입 준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기자

민추본, 통일 염원 마라톤대회서 ‘퍼포먼스상’ 수상

11월 3일, 뚝섬 한강공원서
한반도기, 손피켓 퍼포먼스 등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이 ‘서울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퍼포먼스 단체상을 수상했다.〈사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11월 3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2024 제7회 서울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평화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역사를 지키고 평화로 달리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대회는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개최돼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민추본 회원들은 한반도 단일기와 전쟁반대·평화기원 구호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참가했다. 이들은 현수막, 손피켓 등을 들고 시민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민추본은 참가 팀 중 유일하게 슬로건을 들고 달려 ‘퍼포먼스 단체상’을 받았다.



민추본 측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 서울평화마라톤대회를 통해 평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추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평화통일 실천의 장에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평화마라톤대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지키고 평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매년 열리고 있다. 김가령 기자

종회 문화분과위, 불교박물관에 발전 기금

“불교문화 전승 · 발전 최선”



조계종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불교문화 진흥에 정성을 보탰다.〈사진〉

문화분과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불교중앙박물관장실에서 불교중앙박물관에 불교문화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위원장 종봉 스님은 “문화분과 소관인 불교중앙박물관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노력한 만큼 빛나길 바란다”며 “종정 스님(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께서 (문화분과위원회에) 주신 격려금이 있었는데, 박물관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위원스님들과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위원회 스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은 박물관 직무 수행에 큰 힘이 됐다. 늘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반려명상’ 화요강좌

11월 19일 다보빌딩 다보원서

진흥원이 ‘반려명상’을 주제로 한 강좌를 마련한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19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다보원에서 성소은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 대표를 초청해 ‘반려명상’을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연다. 성 대표는 일상 속 명상을 통해 ‘온전한 나(참나)’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선 성소은 대표는 일본 릿쿄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동경대 대학원에서 법학정치학 석사, 한국성공회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라는 선불교의 법어에 이끌려 3년간 참선, 출가수행을 했다. 선방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참구하던 중 깨달음의 경계를 체험하고 환속해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를 이끌고 있다.

강의는 무료이며, BBS-TV와 유튜브 ‘헬로붓다tv’에서도 강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02-719-2606

김민재 기자